

번호 02-4

제 목	국 문	간장질환 주의군에서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시작 및 체중감소가 간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철강제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4년 추구연구-			
	영 문	Impact of Smoking Cessation, Reduction of Alcohol Consumption, Start of Regular Exercise, and Weight Control on Improvement of Liver Function in Workers with Moderately Elevated Liver Enzymes - 4-year Follow-up among Workers in a Steel Manufacturing Industr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하명화, 이덕희 <sup>1)</sup> , 이송권 포항제철 보건관리실, 고신대학교 의학부 예방의학교실 <sup>1)</sup>			
	영 문	Myung-Hwa Ha, Duk-Hee, Lee <sup>1)</sup> , Song-Kwon Lee POSCO Health Care Cente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Medical Collegex <sup>1)</sup>			
분 야	보건관리 ( )	발 표 자	일반회원 ( 0 )	발표형식	구 연 ( 0 )
	역 학 ( 0 )		전 공 의 ( )		포스터 ( )
진행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0 ) -> 완료예정시기 : 1999년 11월				

1. 연구목적

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성인남자의 중요한 사망원인중 하나이며 유병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음주, 흡연, 운동, 비만등과 같은 건강행태도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직장정기신체검사상 간장질환 관리 혹은 주의로 판정받은 철강제조업체 생산직 남자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시작, 체중변화가 1998년 간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1994년 건강진단을 받은 생산직 남자 근로자수는 총 11,610명이었으며 이들 중 4년 동안 3,471명은 이직 혹은 전출되어 1998년에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수는 8,139명이었다. 이들 중 B형 혹은 C형 간염, B형 간염 항원양성자, 기타 간장질환의 과거력 혹은 현재력이 있는 자, 기타 치료중인 질병을 가진 자를 제외한 후 1994년 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 관리 혹은 주의로 판정받은 근로자는 총 1,385명이었다. 건강행태는 4년간의 변화양상에 따라서 흡연은 금연군, 비흡연군, 흡연군, 음주는 절주군, 비음주군, 음주군, 운동은 규칙적 운동시작군, 비운동군, 규칙적운동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체중은 체질량지수 변화정도에 따라 체중감소군, 체중불변군, 체중경도증가군, 체중고도증가군으로 분류하였다. 통계분석시 연령, 1994년 누적흡연량, 주당 알코올섭취량, 주당 운동빈도, 체질량지수, 1994년 간기능검사를 혼란변수로 포함시켰다.

3. 연구결과

체중변화는 간기능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체중변화가 없거나 감소할수록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체중변화를 연속변수로 처리한 후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시작의 영향을 평가하였을 때 금연군과 규칙적 운동시작군이 각각 흡연군과 비운동군에 비하여 GPT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1.48배(95% CI: 1.05-2.09), 1.32배(95% CI: 1.00-1.75)높았으며 절주군은 음주군에 비하여  $\gamma$ -GTP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1.61배(95% CI: 0.92-2.82)높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음주군은 비음주군에 비하여  $\gamma$ -GTP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3.90배(95% CI: 1.15-13.3)높았으며 비흡연군은 흡연군에 비하여 GPT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1.93배(95% CI: 1.42-2.63)높았다. 1998년도 GOT, GPT,  $\gamma$ -GTP가 모두 정상범위이면 간기능 회복군, 그 외의 경우를 간기능 이상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체중고도증가군에 비하여 체중경도증가군이 간기능회복군이 될 가능성은 1.57배 (95% CI: 1.14-2.17), 체중불변군 1.82배 (95% CI: 1.30-2.55), 체중감소군 4.24배 (95% CI: 3.06-5.89)였다. 그외 계속흡연군에 비하여 금연군이 간기능 회복군으로 될 가능성은 1.39배(95% CI: 0.99-1.96), 비흡연군은 1.82배(95% CI: 1.34-2.48)였으며 규칙적 운동시작군은 비운동군에 비하여 간기능회복군으로 될 가능성이 1.37배(95% CI: 1.04-1.81)였다.